

“호남발전 위해 ‘1당 독점’ 바뀌어야”

정당 밀어주기 구도에 인물 경쟁 실종
광주·전남 역대 총선 무소속 당선 미미
“큰 정치인, 포스트 DJ 찾자” 한목소리

제3지대 신당 등 내년 4·15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의 정계개편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편으로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는 현역 국회의원들 또한 늘고 있다. 하지만 무소속 후보의 당선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어서 고민이 커지는 즈음이다.

일각에서는 특정 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1당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오히려 지역정치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부정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적지 않았던 만큼 정당 간 경쟁구도를 넘어, 인물 경쟁 위주의 선거 투쟁이 아쉽다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특히나, 독점적 정당 정치에서 잇따른 일탈행위로 인한 지역민의 시선 역시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제 능력을 갖춘 무소속 후보나 야당의 인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키워 ‘포스트 DJ’, 호남 정치의 동량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광주매일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광주·전남에서 치러진 역대 총선(13대~20대)에서 무소속 후보의 당선율은 최소 0%에서 최대 21.1%에 불과했다.

지난 제20대 총선의 경우 광주·전남의 18개 선거구에서 모두 16명의 무소속 후보가 출마했지만 당선자는 1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또 제19대 총선에서는 19개 선거구에서 35명의 무소속 후보가 출마표를 던졌으나 광주 동구의 박주선 후보 1명만 당선됐다. 이에 따른 무소속 후보 당선율은 0.5%였다.

당시 광주 동구는 민주통합당이 해당 지역을 무공천 지역으로 선언한 가운데 양형일, 이병훈, 박현, 박동수, 박주선, 김강열 후보 등 무소속 6명과 자유선진당 구봉우, 통합진보당 김관희 후보 등 8명이 맞붙어 박주선 후보가 승리를 따냈다.

또 서갑에서는 민주통합당 공천을 받은 박해자 후보에 맞서 송갑석·조영택·정용화 등 경쟁한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나섰으나 모두 박 후보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

제18대 총선은 광주·전남에서 가장 많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선거였다. 1

9개 선거구 중 광주 남구 강운태, 목포 박지원, 해남·완도·진도 김영록, 무안·신안 이윤석 후보가 당선돼 무소속 당선율은 역사상 가장 높은 21.1%였다.

이들은 각각 통합민주당의 지병문, 정영식, 민화식, 황호순 후보를 눌러 사실상 13대부터 이어져 온 ‘민주당’ 씩씩이 개표 결과를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17대 총선에서는 20개의 선거구에서 나주·화순의 무소속 최인기 후보가 유일하게 당선돼 무소속 당선율은 0.5%를 기록했다. 최 후보는 당시 새천년민주당 배기운, 열린우리당 문두식, 자민련 구봉우 후보와 경쟁, 승리를 따냈다.

제16대 총선에서는 19개 광주·전남 선거구 가운데 광주 남구 강운태, 보성·화순 박주선, 해남·진도 이정일 무소속 후보 등 3명이 당선돼 15.8%의 당선율을 보였다.

당시 강운태 후보는 한나라당 진성수, 새천년민주당 임복진, 무소속 송갑석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박주선 후보는 한나라당 정인환, 새천년민주당 한영애, 무소속 박관석 후보의 추격을 물리쳐 지력을 입증했다.

이정일 후보는 한나라당 최응국, 새천년민주당 김봉호, 민주국민당 곽봉근, 무소속 이석재·박종백 후보와 접전을 벌였다.

2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한 제15대 총선과 25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한 제14대 총선에서는 각각 새정치국민회의(15대)와 민주당(14대)에서 공천한 국회의원이 100% 당선됐다.

이외에도 제13대 총선 역시 23명의 국회의원 의석 중 평화민주당이 22명(95.7%), 한겨레민주당 1명(4.3%)로 집계돼 14대~16대 총선에서는 무소속 당선자를 단 1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호남 정치권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늘 소외됐고 변방이었던 바, 그동안 특정당에 대한 몰아주기 투표행태가 두드러졌고 그 폐해도 끊이지 않았다”면서 “DJ 이후 호남을 대표할 만한 큰 정치인이 없다는 자괴감이 큰 만큼 지역발전에도 쓰일 참일꾼을 선택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임채만기자



광주시청에 설치된 성탄트리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맞아 아기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사랑과 화합을 기원하는 높이 12m의 '성탄 트리가 12일 오전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점등식을 갖고, 내년 1월 31일(오후 5시부터 11시30분)까지 불을 밝힌다. 이날 점등식에 산타복장을 하고 참석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동찬 시의회 의장이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애리기자

호남 최초 스마트폰 방송국 광주매일TV

[파워인터뷰] 김희재 전 광주·의정부 검사장 (1·2편)
2019 통일기원 송년음악회
[문화산책] 한국화가 날리 허임석

m.kjdaily.tv m.kjdaily.com PC·스마트폰·유튜브·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광고·시정문의 062)650-2024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전략 구체화작업 쟁점

추진위 정책워크숍...실행방안 모색 6개 분과위 구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광주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시는 올해 추진했던 다양한 정책 성과와 의미를 되짚어 보고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만들기 추진위원회 정책워크숍’을 마련해 전략 구체화 작업을 이어갔다.

인재양성,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데이터센터 등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실행방안 수립하며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협의체 구성도 추진한다.

11·12일 이틀간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워크숍은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추진위원과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분야별 주제발표와 토론, 추진위원회 전체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문가 주제 발표는 ▲이건호 차매체측 기술 국책연구단장의 ‘차매 빅데이터 헬스케어 산업 현황 및 전망’ ▲문승일 서울대 교수의 ‘AI중심도시 광주,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현영석 한남대 명예교수의 ‘AI자동차산업 육성 광주글로벌모터스 성공전략’ ▲이두희 멧방의 사자처럼 대표의 ‘우리가 컴퓨터를 가르는 방법’ ▲임혁 GIST AI연구소장의 ‘AI+X 융합교육’이다. /김다이지

문 교수는 “광주 인공지능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유관 기업들이 참여해야 하지만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주에서만 가능한 차별화된 AI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줘 광주가 아니면 안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에너지, 헬스케어, 자동차, 문화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광주가 수익성 높은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은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와 직접 관련돼 있다”면서 “자동차의 제품·부품, 생산, 운행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사업화 하느냐가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발전하는데 관건이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 자체를 발전시키는 것 못지않게 기술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자동차 생산기반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아차 광주공장의 생산 확대는 물론 새로 출범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성공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김다이지

전남 어촌뉴딜사업 2년 연속 전국 최다

내년 120곳 중 37곳 뽑혀

전남도가 2년 연속 어촌뉴딜 사업 전국 최다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지역주민들의 맞춤형 준비로 인해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막대한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낙후된 어항 정비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활기 넘치는 전남 어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전남도는 12일 “2020년 어촌뉴딜300 사업 공모사업에서 전국 120곳 중 전남 37곳이 뽑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다 선정 지자체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지자체는 여수·신안이 각 5곳으로 가장 많고, 무안·완도 각 4곳, 고흥·장흥·해남 각 3곳, 보성·영광

각 2곳, 목포·순천·강진·함평 각 1곳 등이다. 해당 어촌에는 오는 2022년까지 3천591억원을 투입해 낙후된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2년 연속 최다 선정된 이유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촌·어항 보유라는 특성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어촌 주민들의 참여 분위기 확산과 사업 유지를 열망하는 주민의 열기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전남도의 평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부터 낙후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어촌뉴딜300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300개 어촌을 선정했고 2020년에는 120곳에 1조2천억원을 지원하는 등 5년간 3조원 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임채만기자

고독사 예방은 모두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이웃이 이웃을 돕는 복지마을 공동체
북구에서 함께 만들어요!

복지1촌맺기, 모바일 안심 돌봄서비스, IOT 사업 추진 등 지금 든든한 이웃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도움요청 문의전화 | 북구 희망복지과 (062-410-8577, 6383)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역민원상담센터(☎120)

광주광역시북구 GWANGJU CITY BUK-GU